

처용무의 동작선과 방위에 대한 형태심리학적 분석

김 헤 라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학원 졸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처용무의 동작선과 방위에 대한
형태심리학적 분석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현대 인류는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에서 문화 창조력이 나라의 경쟁력으로 대변되는 정보화·문화의 세기로의 시대적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문화 창조의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민족에게는 도약의 시대라고 믿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의 시대적 변혁은 근대화 이후 일부 쇠퇴하였던 전통 예술 분야에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여겨지며, 오히려 이제는 전통의 발굴이 그 학문적 가치 뿐 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으로도 각광받는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재능이 녹아있는 한국 전통무용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이미 한국 전통무용은 세계에서 그 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험 많으나, 세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세계인의 한국 전통무용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미미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무대에서 한국 전통 무용이 보다 널리 인식되기 위해서는 공연장에서 세계인이 느꼈던

체험적 우수성과 함께 이론적 우수성 또한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현대 문명은 서양 철학에 기초한 사회이며, 예술 또한 그러한 서양 철학에 기초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전통 무용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이론적 분석에 서양 철학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미 처용무에 내재된 동양 철학의 사상과 작품의 우수성은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어졌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 전통무용인 처용무의 동작선과 방위에 대해 서양의 대표적 형태 분석 방법인 형태 심리학(Gestalt)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처용무의 전체적인 동작선과 방위의 형태는 직선에서 사방, 오방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다보탑의 방형 팔각형 원형으로 이어진 형태와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 한국인의 공간의식의 표출이며 전통 건축의 자연순응의 공간사상이 처용무의 공간구도와도 일치한다고 본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인만의 고유한 문화적 형태각이며 형태심리학적 분석의 의의 있는 발견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심리는 각 나라의 독특한 민족성과 역사와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의 문화의 장(場)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심리적 과정과 지적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술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써 이러한 정신적 기능에 대한 모든 탐구는 심리학의 통제에 놓일 수 있다라는 형태심리학의 명제 하에 처용무의 형태를 부분적인 관점과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시·지각적 특질에 의거한 전체성의 원리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물리적 장(場)의 역동성과 심리, 생리적 관점사이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장(場)이론의 개념과 표현의 질을 중심으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심상으로 처용무의 공간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처용무의 형태심리학적 분석은 동작선과 방위 뿐 만 아니라 춤사위, 음악, 무복, 탈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동작선과 방위로만 제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과 면을 중심으로 한 2차원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의 서양 철학적 기법을 통한 분석은 그 이론적 보편성을 확보하여 우리 전통 무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처용무의 이해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써 신라49대 헌강왕 때 울산의 개운포에 출현한 청룡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려 때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처용설화가 기록되어 있고, 울산에는 처용이 나타난 처용암과 헌강왕이 동해 용왕을 위해 지었다는 절인 망해사가 있으며, 처용암 건너편에는 지금도 처용 마을이라는 지명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처용은 설화라고 하기보다는 실존인물이라고 하는 설까지 있다. 처용무의 전체 구성은 입장, 사방무, 사방희무, 오방무, 오방희무, 낙화유수, 퇴장 등으로 되어 있고 음악은 수제천에 맞추어 춤을 춘다. 처용무는 신라 때는 혼자서 추는 일인무였으나 고려 때는 쌍처용바바라 하여 두 명이 추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세종 때 오방 처용무로 정착되어 청, 홍, 황, 흑, 백의 다섯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동, 서, 남, 북 중앙의 방위에서 음양오행의 사상을 중심으로 춤을 추었다.

신라시대의 처용무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승된 것은 궁중의 행사 때마다 연희되었고 처용무에 내재되어 있는 벽사진경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물리친다는 주술적 기능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또한 처용무는 이러한 주술적 기능 뿐 만 아니라, 춤을 추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예술적 승화 기능도 뛰어나다. 따라서 대표적 한국 고전 무용으로써 그 역사적 유구성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동양철학적 배경 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처용무에 대한 분석이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2. 형태심리학의 개념

형태심리학은 현대 심리학이 시작될 즈음 인식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헬

롬볼리츠(Helmholtz)의 지각의 구성론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은 19C말 경험론을 원자적 요소로 분석하는 분트(Wundt)의 구조주의 심리학에 직접 도전을 건 독일의 한 운동이었다. 형태주의자들은 브렌타노(Brentano)와 스템프(Stumpf)의 작용심리학과 아울러 분즈버리(Würzburg) 학파의 전통을 물려받아 분트의 환원주의적이고 분석적인 자연과학적 모형에 대한 하나의 대안모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형태심리학은 20세기에 들어서는 M. 베르트하이머의 운동관(運動觀)의 연구(1912), W. 쾰러의 유인원(類人猿)의 사고연구(1917), K. 코프카의 지각과 기억연구, K. 레빈의 의지동작(意志動作) 연구(1922 이후) 등이 나와서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과학(예컨대 생리학자 C.M. 차일드의 실험발생학에서의 勾配說), 사회과학(사회심리학에서의 場理論, 그룹 다이내믹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R. 아른하임은 이러한 형태심리학을 예술에 적용함으로써 예술이 인간의 다른 정신활동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고, 또한 심리학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정신적 기능에 대한 모든 포괄적 탐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형태심리학은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이라고도 하며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사물이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영어에서는 윤곽(Configuration) 모형(Pattern)으로 기술되고 철학 대사전에서는 자신의 구조 내지는 체제를 갖는 구상자체 즉,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인 지각에 관한 구조(structure)라고 정의된다. 형태심리학은 게슈탈트 학파의 주장에 의해 중요한 개념이 성립된다. 이를 살펴보면, 게슈탈트의 법칙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게슈탈트의 일차적 여건으로는 공간 속에서 개별적이고 한정된 요소들의 총화를 주목하기보다 전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심상이 개념 또는 심적 요소의 기계적 연합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현상학적 관찰이다. 즉 관찰할 때는 소박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 인간의 눈은 색, 형, 크기, 거리등에 대하여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능이 있다. 네 번째로는 심리-물리

1) Kurt Koffka(1958),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op. cit, pp. 211-264.

의 동형설이다. 이것은 현상의 관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심히 현상의 배후에는 이것에 상응하는 생리-물리적 연관의 계취탈퇴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심상은 대뇌에서 심리-물리적 장(場)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심리적 과정과 생리적 과정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동형성)을 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리적 개념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²⁾ 마지막으로 위의 성질을 명백히 하기 위한 역학설³⁾의 도입이다. 이것은 생리-물리의 수준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역학관)를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심리적인 계취탈퇴 성질의 성립구조가 명백해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망막에 일정 형태의 물체의 상이 투사되었을 때 망막에 흥분이 일어나는 것은 꼭 빛이 투사된 부분에만 제한되지 않고 계통적인 경사도를 가지고 그 주변에도 미친다(場理論)⁴⁾는 것이다. 기하학적 착시나 기타 현상의 설명에는 이와 같은 흥분의 장(場)을 고려해 놓아야만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을 토대로 아른하임을 비롯한 형태심리학자들은 시각예술 작품의 시·지각적 특질의 분석에 있어 ‘전체성의 원리’를 도구로 접근한다. 그 전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군집의 법칙(Law of Grouping), 형과 지의 법칙(Law of Figure and Ground), 단순성의 원리(Law of prägranz or Law of Simplicity)등을 통해 시각적 특질의 분석을 전체성에 의존시키고 이 전체성의 요인을 더욱 강조하여 작품분석으로 이행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1의 ‘루빈의 컵’에서 검은 부분은 사람의 얼굴로, 흰 부분은 컵으로 보인다. 이것은 도형과 배경의 양자택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계취탈퇴 시각형태는 도형이 시각장의 잔여부분에 나타나 형성됨으로써 지각의 전체장과 구별되는 현상이며, 그것은 배경으로서 생각되거나 도형에 대한 배경

2) Ibid., pp. 222-225.

3) Rudolf Arnheim(1977),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5-34. 계취탈퇴 학파는 전기와 자기의 場 또는 비누거품과 같은 <系>로서의 성질을 갖춘 물리현상에 주목한다. <系>란 역학적인 힘의 평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일부분이 변하는 즉시 파급된다는 것이다.

4) Kurt Koffka, 앞의 글, pp. 41-46. 계취탈퇴 심리학을 力學的인 場의 개념으로 설명한 사람은 K. Lewin(1890-1943)이 대표다. 公의 에너지로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특히, 場理論이라 부른다.



〈그림 1〉 루빈의 컵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도 시각의 기본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시각의 기본법칙은 주어진 사물을 가장 간결한 구조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다.⁵⁾ 이러한 시·지각의 관찰은 우리의 지각이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며 우리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슈탈트 시각은 유기체를 조직화시켜 본다. 이는 M. 베르트하이머가 처음으로 제기한, 주로 지각심리학 영역에서의 중요한 법칙으로서 특히 시지각(視知覺)에서 그룹핑(Grouping)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 법칙은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과, 대칭성에 기초하여 사물을 그룹화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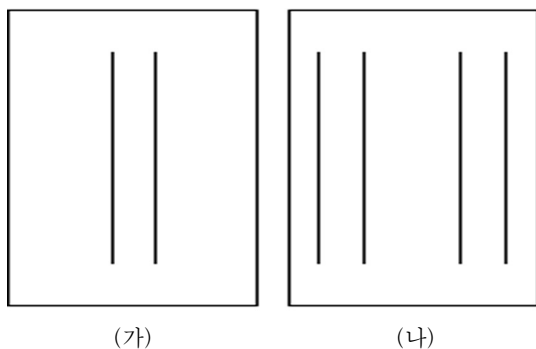
1) 근접성(Proximity)

근접성은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조건이 된다.⁶⁾ 두 형태가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지각적으로 함께 집단화되는 경향을 갖는다.⁷⁾ 상대적인 근접성은 가장 강력한 경향을 감각 단위들 간의 상호연결에 제공한다. 이들은 결합된 형태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5) R. Arnheim, 앞의 글.

6) Gyorgy Kepes(1960), *Language of vision*, p. 46.

7) Glitman(1986), 『심리학개론』, 주태영, 장연간 외 5명(역), 서울: 서울교역사,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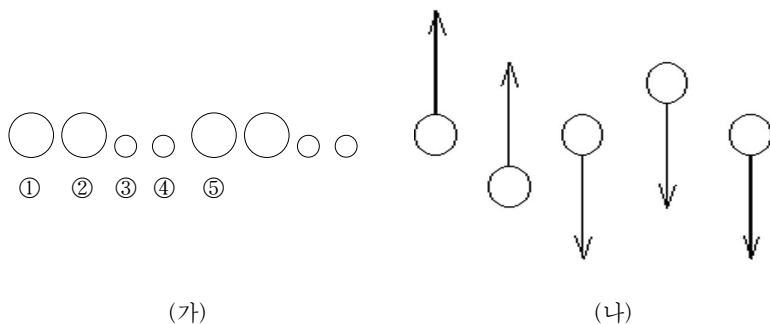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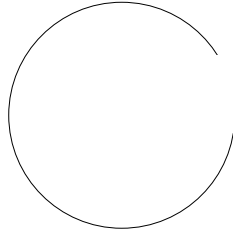
그림 2의 (가)에서 두 개의 평행선은 하나의 단위로 지각된다. 평행선 사이에 공백이 둘러 쌓여져서 평행선은 공간과 분리돼 보인다. 가까운 선들은 게쉬탈트 형태로 결합한다. (나)에서 두개의 평행선이 더하게 되면, 그들 사이의 간격이 만드는 형태는 결합된 일체로서 특성을 잃고 두 개의 새로운 시각 단위의 배경으로서 구실을 한다.

2) 유사성(Similarity)

유사성이란 서로 닮은 형체들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한 집단으로 조직화 되는 것이다. 유사성은 동일크기, 형태, 방향, 색, 명암, 그리고 질감에 따라



〈그림 3〉



〈그림 4〉

함께 보이려는 것이다.

그림 3의 (가)에서 ②③, ④⑤로 묶여 보이지 않고 ①②, ③④로 묶여 보인다.

(나) 방향의 유사성으로 그룹 지어 보인다.

3) 폐쇄성(Closure)

공간적인 질서와 안전성에 대한 조직화의 힘은 시각 단위를 밀폐된 단일 체로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⁸⁾ 하나의 시각단위는 가능한 한 주위로부터 가장 경제적인 폐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시각단위에서 공백을 채우려는 심리가 일어나서 인간은 잠재적인 연결을 구축하게 된다. 이것을 연결성이라고도 한다.

그림 4는 하나의 원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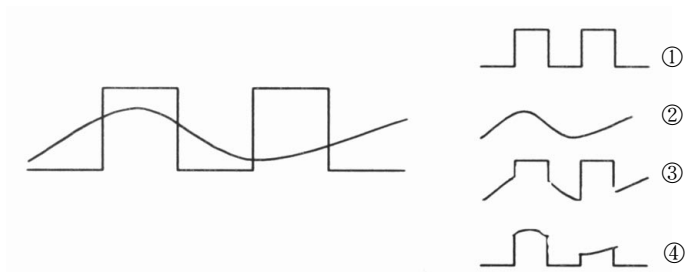
4) 연속성(Continuity)

연속되어지는 자극들은 서로 단절되는 정보들 보다 공통된 형태로 조직화될 가능성이 크다.⁹⁾

그림 5의 ①②로 보이지 ③④처럼 조직화되어 보이진 않는다.

8) G. Kepes, 앞의 글, p. 32.

9) 이관용 외(1991), 『심리학개론』, 을국 출판사, pp. 138-139.



〈그림 5〉

직선은 직선으로써, 연속선은 곡선의 연속으로써, 파장(波狀)선은 그 원래의 리듬이 계속되는 반복으로 보여지곤 한다. 그와 같은 선의 연속선은 단순한 질서를 군집화 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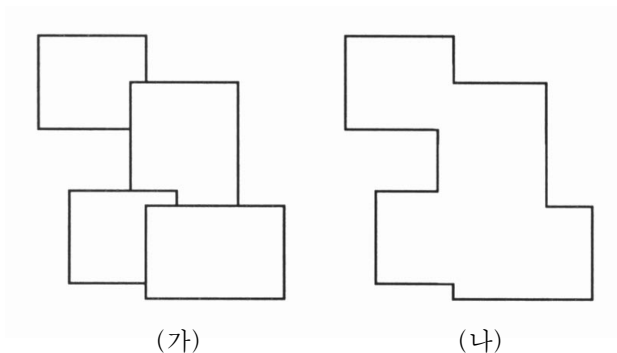
5) 대칭성(Symmetry)

대칭성(Symmetry)의 법칙은 닫혀진 연속이 대칭적일수록 형태를 이루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접, 유사, 폐쇄, 연속 그리고 대칭성은 신경중추의 지각적 조직으로 그 상황이 허락하는 한 좋은 형태(Good Gestalt) 또는 전체(The Whole)를 구성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이때 형태는 의미 있고, 완전하며, 단순하게 되려는 경향을 갖는다.¹¹⁾ 이러한 형태심리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요시하는 춤에 있어서 중요하고 춤의 선을 지각하는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장(場)의 힘 개념을 물리학에서 도입하여 모든 힘, 활동, 행동은 어떤 환경의 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각적 장의 힘은 적용의 면적, 방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場)의 상태는 장(場) 내에서 행동하는 모든 힘들의 결과인 것이다. 그림 6 (가)에서 4개의 중첩된 사각형으로 보이고 (나)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항상 우세한 조건들이 허락하는 한 심리적 조직화는 좋은 것으로 된다는 것이 프레그랜즈(Prgranz)의 원리로 지각은

10) G. Kepes, 앞의 글, p. 41.

11) R. 아르하임(1981),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p.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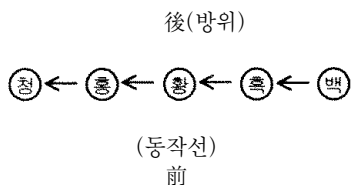


〈그림 6〉

주변 환경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심리적 생리적 두 과정은 유질동상(流質同象)이 되어 구조적으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선, 면, 입방체 등의 형태는 역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거나 가볍게, 행복하게나 슬프게 보인다. 이는 지각적 경험과 신경학적 과정 사이의 유질동상으로 설명된다. 다음은 게쉬탈튀 표현이론에 의한 형태 표현의 질로서 R. 아른하임은 건축이나 춤같이 3차원적인 표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게쉬탈튀 이론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학적(力學的)인 견해나 전체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관찰자와 대상의 움직임에 따른 지각을 중요시함으로써 게쉬탈튀 이론이 2차원적 표현에만 적합하다는 한계성을 타파하게 해준다고 보겠다. 예를 들면 길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풀이 죽었거나 맥이 빠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걸음걸이와 모습에서 시각형태로서 가장 뛰어난 성질을 명시하는 것은 ‘우울함’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패턴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우울하게 보는 관찰자의 체험인 것이다.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우울하게 보는 것은 시각의 조직화를 통해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표현의 질의 한 예이다. 이상으로 형태심리학의 법칙에 의거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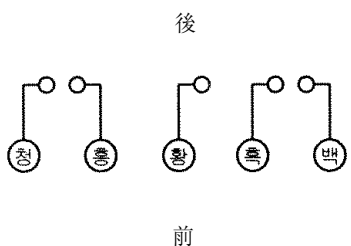
III. 처용무의 동작선과 방위에 대한 형태심리학적 분석

1) 平進



직선으로 가장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이다. 일률적 방향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연속적으로 조직화된다. 직선으로 나오는 형태는 경직적이고 단결성을 보이며 적을 물리친다는 의미와 적절하게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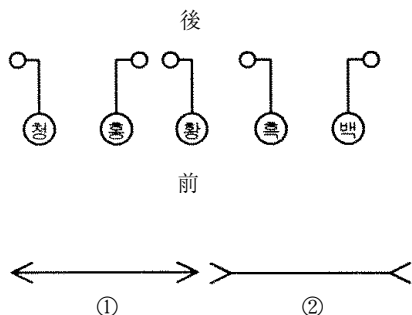
2) 相拜



청홍과 흑백을 하나의 단위로 지각되는 근접성을 띄어 서로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며, 황은 청홍과 흑백이 배경 구실을 하여 독립된 도형으로 조직화시킨다. 회화적 감각으로 볼 때 초현실주의 기법의 하나인 데칼코마니(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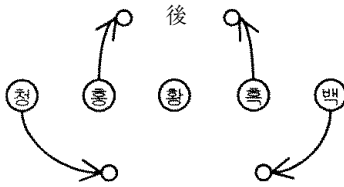
대칭성)를 연상케 하는 모양이 표현의 질을 연상케 한다.

3) 相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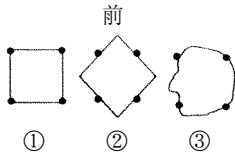
홍황과 흑백의 공간 사용의 실선은 똑같다. 그러나 시·지각으로 그 의미는 확실히 틀리게 보인다. 자연과학적 의미로는 착시라고 하는데 ①보단 ②가 길게 보인다. ①의 홍황 보다는 ②의 흑백의 형태가 더 길어 보이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4) 四方作隊而舞



청과 백이 앞으로 이동하고 홍과 흑이 뒤로 물러서면서 한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는 사방을 이루는 동작선으로 청, 홍, 흑, 백은 폐쇄성에 의한 조직화의 경향을 나타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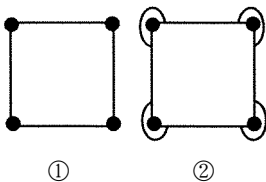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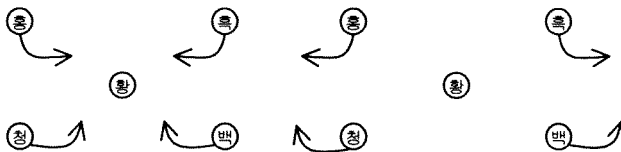
밀폐된 단일체로 지각된다.



또한, ②③의 형태로 보이지 않고 ①의 형태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지각하려고 하는 단순성의 원리(프래그랜즈 원리)에 따라 지각된다. 무대를 배경으로 무용수를 도형으로(전경) 볼 때 대칭적이며

통일감은 있으나 유동성이 없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평온하고 부드러운 형태 즉 정적인 표현적 질의 형태이다.

5) 四方作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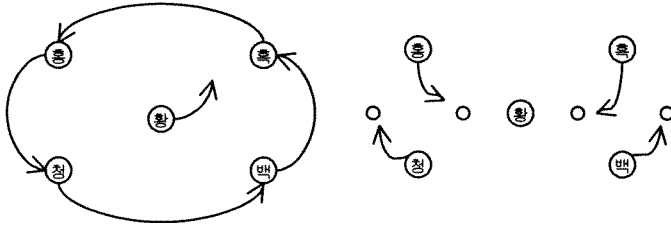


동서 방위의 청, 백, 홍과 흑이 황을 중심으로 相拜, 相背하는 동작선이다. 이 두 방향은 유사성으로 그룹화 되고 공간의 역동적 장의 형성이 틀리게 지각된다. ①보단 ②의 相背舞의 에너지 유동공간이 더 확산되

게 보이며 의미가 다르게 지각된다. 착시적 효과로도 ①②의 실공간 점유율은 같지만 ②의 형태감이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확산되어 커 보이며 좀더 적극적인 공간적 표현의 질을 가진다. 그리고 데칼코마니의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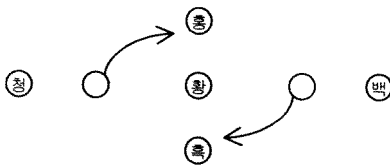
을 보는 듯한 강한 대칭성으로 지각된다.

6) 五方作隊圖





연속적인 형태로 동작선 하나 하나가 오방을 향하여 움직일 때는 개별적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가 큰 하나로 연결되어 조직화된다. 황은 청, 홍, 흑, 백에 대한 도형으로 돋보이며 게슈탈트를 성립시킨다. 시각적으로 좌측으로 도는 것은 우측보다는 순탄한 의미로 지각되지 않는데 이는 내용과도 형태감이 약간은 의미가 통하는 유질동상의 부분이 있다. 또한 음양의 의미로 볼 때는 음을 의미하고 이는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성장하려는 주술적 의미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7) 五方作隊圖



홍과 흑의 이동선은 태극선으로 한국춤에서 주로 이용되는 동작선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주의적인, 자연에 순응해 나가는 운동성을 보이며, 시·지각적으로는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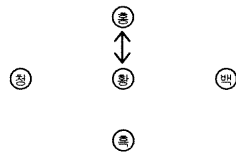
대칭적이어서 안정적이고 전체가 좋은 형태를 갖고 있다. 방위의 이동으로 폐쇄성에 의한 조직화로 지각되며 역동적 장을 형성하여 변화된 통일감을 준다. 형과 지의 법칙에 의거하여 시·지각의  형태는 가장 유동적이며 동적 이미지를 주는데  형태와는 달리 전체 동작선의 형태는 돌출 되어 보이며 기하학적인 형태로 공간미를 지각한다. 또한 표현의 질은 흥분감과 다양한 입체감도 보여준다. 오방은 동양사상의 방위개념과 일치하며 홍을

중심으로 각 방위를 수호하는 의미의 공간구도이다. 이러한 의미와도 형태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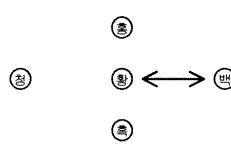
8) 手揚手五方舞 청황相拜相・相背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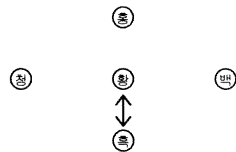
황홍相拜・相背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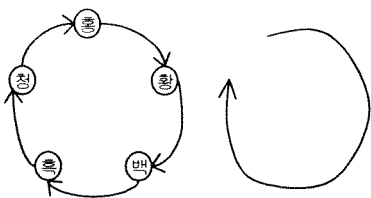
황백相拜・相背舞



황흑相拜・相背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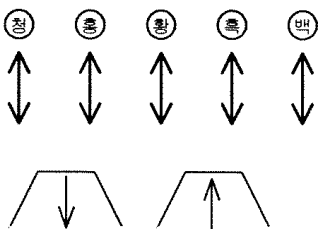
청・황, 홍・황, 백・황, 흑・황의 순서대로 대무하는 것은 연속적인 조화를 일으키며 역동적 장(場)을 형성하며 전체가 점진적인 3차원적 조형미를 지각하게 된다. 이 연속성으로 사방의 대무는 각각의 대무들이 보여지는 의미보다 집합적인 더 큰 의미를 주는데 이것은 계취탈퇴의 부분들은 하나의 뭉뚱그린 총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청・황이 대무할 때에 홍・흑・백은 배경이 되지만 청・황은 홍・흑・백의 공간범위를 침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만 대무 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는 전통건축의 자연경관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는 자연과의 조화의 큰 특징적인 공간의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관조자의 시각이 한 위치에 고정되지 않게 관찰되도록 함으로 조형적 형태를 다양하게 지각하게 하는 기하학적 형태가 표현의 질이다. 대무 또한 청(봄)부터 홍(가을), 흑(겨울) 순으로 대무하는데 황이 각각의 무용수와 대무하는 것은 상생의 순행을 의미하며, 황과 相拜후에도 청부터 백까지 계속 춤추는 점진적인 이동 형태는 전통문양의 회(回) 무늬를 연상케 한다. 이 회무늬는 長生不死, 多富, 多福과 주술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한국인만의 문화적인 형태각이다.



- 9) 서로를 生하여 만물생성의 법칙의 형태감과 일치하며 이는 독립된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각 개개의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로 장을 형성하면서 연속적인 형태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며 원과 우측으로의

회전은 심리적, 시각적, 친근감과 안전성을 부여한다.

10) 薺行而舞 洛花流水舞—



근접성과 방향의 유사성으로 그루핑화 된다. 앞에서 보는 관객의 시각에서는 三進과 三退의 의미는 달라진다. 착시현상같이 실공간 자체는 같아도 앞으로 나오는 것과 뒤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움직이는 실 공간은

같으나 관객의 위치, 시각의 만남 때문에 역동적 장(場)의 의미가 에너지가 틀리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선은 무대가 원형으로 바뀌면 관객의 위치도 달라지고 시각적 착시도 일어나지 않는다.


11) 시각적으로 태극선의 동작선을 그리며 다시 서쪽으로 돌아간다. 이는



음의 의미로 방위의 의미도 여성적인 선을 나타내는 표현의 질이다.

전체적인 공간구도 형태는 관객의 시·지각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처용무 동작선의 공간형태를 도입부, 진행부, 종결부로 구분 지어 분석한다. 도입부의 일자 배열은 시·지각적으로 근접성과 방향의 일률성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지각된다. 관객의 시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됨으로 왼쪽에서 시작보단 안정감이 있다. 진행부의 동작선과 방위는 사방, 마름모, 원으로 단순화시켜 본다. 관객이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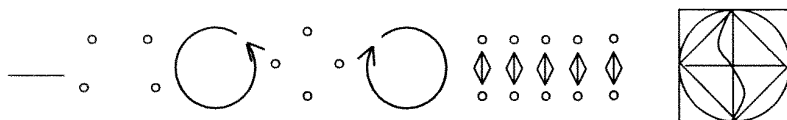
전혀 흐트러짐 없는 계산된 방향이다.

사방무와 오방무의 합은  한국 문향의 능형으로써 네 가지 형태의 방향을 전환하며 표현되어 있다. 단순한 모티브의 규칙적인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에 변화와 리듬감을 주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통일감을 느끼게 하는 능형의 배열방식이다. 또한 네모, 마름모꼴을 여러 겹 포갠 것은 신석기시대 토기에 나타나는 무늬로 뇌문으로 불려지는 형태감 으로도 보인다.

전체적인 진행부의 동작선은 도입부와 종결부의 선적인 형태 보단 면적인 좋은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다. 전체형태는 정방형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반면 일렬에서 오방으로 전환되는 태극선의 동작선이 특징적인 도형(전경)으로 지각된다. 그리고 직각적인 형태감속에 감춰진 태극선의 곡선적 이미지는 태극기의 상징적인 의미와 유사한 문화적 형태각으로도 본다.

종결부는 태극선을 굿고 다시 일렬로 퇴장한다. 도입부의 시작이 서쪽(오른쪽)에서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서쪽으로 퇴장하면서 캐논형식(A-B-A)을 연상케 한다. 형태감은 한국적인 곡선 형태로 진행부의 딱딱한 동작선을 미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전체적인 동작선과 방위를 단순화시켜 합쳐보면 이러하다



전체적인 형태는 서로 강한 대칭적인 게슈탈트로 조직화되어 어느 한곳도 빈틈이 없이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방향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점, 선, 면의 점진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구조로 지각되며 뚜렷한 정방형프레임의 공간지각과 단순하면서도 밀도 있는 춤 구성의 공간형태는 폐쇄성에 의해 안정감 있는 춤틀로 지각된다. 각각의 방위, 사방, 오방, 원에서의 역동적 장의 에너지를 창출한다. 또한 원형무대와 프러시니움 무대를 배경으로 이들의 의미는 달라진다.

전체적인 춤틀은 기하학적인 도형의 도안으로 보이며 발전되는 구조형태

는 다보탑의 방형 팔각형 원형으로 지어진 형태와 유사하다. 이는 단순한 도형이 아닌 우주적인 틀로 연결되는 듯하다. 다보탑의 선과 선이 응축되어 얹혀 있는데 이는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바를 내세에서 기원하는 불자의 간절한 마음과 현재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선이 얹혀 있다. 이러한 선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형태가 작아지며 점점 원으로 선이 다듬어지면서 하늘에 뜻이 통하는 듯한 한국적인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이러한 틀의 형태는 처용무의 직선에서 사방, 오방으로 연결되는 형태도 또한 우리 한국인의 공간의식의 표출이다. 그리고 처용의 설화에 입각해 보면 역신과 아내와의 동침으로 인한 처용의 내적 갈등의 구조, 처용의 현세의 고통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神적인 해탈의 의미를 연결시켜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리고 전통건축의 자연순응의 공간의식이 처용무의 공간구도와도 일치한다고 본다. 전체 형태는 기하학구성의 문양으로 지각되며 이방, 삼방, 사방으로 연속되어 배치되어져 있다. 이 구성은 견제, 균형, 율동, 조화, 대비, 비례, 통일반복, 연속, 착시, 변화, 색채 같은 미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처용무의 음악과 춤사위, 무복, 탈이 주는 의미도 계쉬탈뒤로 분석이 가능하나 이 글에선 제한하며 형태분석은 보는 이의 시·지각적 상상적인 힘에 의해 여러 의미와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이상으로 형태심리학에 대한 개념과 이러한 관점으로 한국 전통춤의 대표적인 처용무의 공간구도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우리의 시·지각은 자극 패턴에 의해 드러나는 결과적인 구조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단순한 형태로 보려고 한다. 또한, 한꺼번에 던져지는 형태 전체로의 체제화에 기본을 두고 있다.

계쉬탈뒤 즉, 형태란 자신의 구조 내지는 체제를 갖는 구상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인 지각에 관한 것으로서 구조(Structure)

이다. 그리고 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표현은 이 시각성을 토대로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에 대한 분리로 나타나며 그루핑 법칙으로 개개인의 관계를 예측시키는 움직임 형태의 계위탈퇴 그 자체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움직임과 공간의 표현성은 개인의 지각과 경험, 공간에서의 유동적인 힘의 관계로서 장(場)과 조직화는 형태심리학 법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조직화의 원리들이 3차원적 형태 표현에서도 형태의 외형적 특성에 대한 인지나 인간의 지각이 조직화되고 심리적 장(場)의 어떤 상태는 가장 좋은 상태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이론이기에 나름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춤의 형태가 주는 표현적 질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힘의 관계로서 조직화 원리를 기초로 한 새로운 통합원리의 발전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춤의 시각적 표현의 의미는 기하학적, 기술적인 속성들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향성 긴장, 역동적 운동에 의한 것으로 생명력 있는 긴장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심리학적 법칙에 의거한 처용무의 동작선과 방위의 형태 분석을 살펴본다.

1. 각각의 동작선은 군집의 법칙에 의하여 개개인의 관계를 예측시키는 강한 대칭적인 계위탈퇴로 조직화되어 있다.
2. 각각의 동작선은 형과 지의 법칙에 의거한 형태로 무용수와 무대가 구분되어지고 동작선과 방위에 따라 전체적인 형태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 1) 동작선이 일렬일 때는 기하학적 착시를 일으켜 무대와 관객의 위치에 따라 그 파장이 다르게 지각됨을 발견하였다.
 - 2) 동작선과 방위가 사방일 때는 공간형태는 폐쇄성에 의해 그루핑화되어지고 전체적인 형태감은  처럼 지각되어져 가장 덜 유동적인 공간표현으로 지각된다.
 - 3) 동작선과 방위가 오방일 때는  처럼 가장 돌출적이며 동적 이미지를 주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장의 의미가 다르게 지각된다.
3. 프래그넌츠의 원리에 의해 심리적으로 방위를 구분하면서 단순하고 좋은

형태를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4. 사방무와 오방무의 합은 한국 문향의 능형으로 지각되며, 사방에서 오방으로 방향이 바뀌 면서 동작선이 신석기 시대의 토기인 뇌문의 형태로 지각된다. 이것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형태각이며 개개인의 경험과 심상에 따라 발견되는 형태는 무궁무진함을 알게 되었다.
5. 전체적인 동작선을 연속화 시키면 하나의 기하학적인 물리적 구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보탑의 방형→팔각형→원형 형태와 유사하였고, 이것은 독특한 문화적 형태각인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도의 배경에는 전통건축의 주축이 되는 의식인 자연 순응적인 건물 배치와 처용무의 공간구도의 형태가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즉, 단순히 보이는 공간적 속성에는 과학적 구도의 정확한 형태감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공간미의 상징적 형태감의 표현의 배경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처용무의 공간형태를 형태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간구도 속의 과학적이며 기하학적인 물리적 균형감과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있는 독특한 문화적 형태가 처용무의 공간 형태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전통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 관점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의미 배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 춤 연구의 세계화에 첫 걸음을 띄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형태심리학적 분석 외에 민족심리학적 분석연구도 필요하며 또 다른 유의미한 작품분석의 접근이 나오길 기대하며 한국인의 미의식 사상과 역사적 배경을 좀더 연구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오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근희(1992). 『곡선의 미학과 우리의 춤』, 서울: 원방각.
이관용 외(1991). 『심리학 개론』, 서울: 율곡출판사.
이두현(1987). 『한국연극사』, 서울: 학연사.
장사훈(1977). 『한국 전통무용 연구』, 일지사.

- 전국민족극협의회 공저(1984). 『민족극의 이론과 실천』, 전국민족극협의회.
- 칸딘스키(1926). 『점, 선, 면』, 안정훈(역), 미진사.
- 成현. 『용재총화』, 卷一.
- 成현 等. 『악학궤범』, 卷五
- Eliot Hearst(1994). 『현대심리학사』, 서울: 교육과학사.
- Glifford T. Moragn(1985). 『심리학 개론』, 권기덕, 이중한, 김상기(역),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Glitman (1986). 『심리학 개론』, 주태영, 장연간 외 5명(역), 서울: 교육과학사.
- G. Kepes(1983). 『시각언어』, 대광서림.
- Jon Lang. 『건축이해의 창조』, 조철희, 김경준(역).
- Jurger Juedicke. 『건축공간의 형태』, 세진사.
- R. 아른하임(1981).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 R. 아른하임(1969). 『시각적사고』, 김정우(역, 198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R. 아른하임(1966). 『예술심리학』, 김재은(역, 1984),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urt Koffka(1958).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Lirer Loght.
- Max Werthimer(1958). *Principles of Perceptual organization*. New York.
- R. Arnheime(1977). *The dynamics of Architectual form*.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gang Kohler(1947). *Gestalt Psychology*. New York: Lirer Loght.
- 고춘혜(1975). “Gyorgy Kepes를 중심으로 한 시각언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수정(1991). “무용표현에 있어서 선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안나(1995).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본 춤의 원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연희(1981). “표현력 신장을 위한 형태지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윤희(1996). “한국춤 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에경(1989). “한국적인 형태의 Formation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천명선(1992). “R. Arnheim의 조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황지선(1983). “시지각을 통한 형태 표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시사저널(1992). 11월 실용뉴스.
- 두산대백과 EnCyber

Abstract

Analysis for the Direction and Moving Line in the 'Chouyoung-Mu' by Gestalt.

Hye-Ra Kim

Department of da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ur sense for visual and perception have a tendency to see the material which is the product of stimulus of the sense as simple as possible and see the material as a one thing. Gestalt do not means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on the space but means the perception of the whole thing in the space including background. The expression on the space for the dance showed as separated figure and background, however simultaneously by the law of grouping possibly perceived individual things as a one and which is the Gestalt. Expression of the moving and space can be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individual experience and emotion, which is the important conception of the law of Gestalt. In the 3 dimensional space for expression such as stage for the dance, Gestalt tends to accomplish the good Gestalt which re-organize the subject to the consummated structure. Good Gestalt could not completed only by the technical part but by the complex of the audiences emotional or subjective condition and the action of the performance including dynamic exercise, tension of direction, and vivid tension.

Because the art as a product of the psychic action can be controled by the psychology, by the Gestalt theory, this paper try to analise the structure of space for the 'Chouyoung-Mu', on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concentrating on the dynamics of physical space and on the perception for the whole based on the theory of space which consider the physical and the psychological structure as a whole, and on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perceptional condition.

As a result, the form of moving line and direction of 'Chouyoung-Mu' was organized strongly symmetrical by the Gestalt. In the direction by perceiving, it was balanced and stable. It was simple and highly concentrated in the aspect of structure in the space. Each direction including lining, the four or five cardinal points, and circle outbreaks lots of energy by the characterization of closure. The basis of structure of

space arrangement is comparable to the natural placement of Korean traditional building and the theory of synergic and reverse effect,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Korean. This simple arrangement has feeling of accuracy to the form by the scientific structure and also enclose the symbolic part of background which is preferred by Korean.

This paper insist that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can be analysed by the Gestalt, and thought that this kind of try has unlimited possibility.